

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등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

2023년 11월 30일자 동아일보 <거꾸로 가는 ‘수소차 생태계’ ... 내수, 1년새 반토막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

□ 보도 내용

- '23년 전국에 충전소 160곳, 수소차 총 3만3796대로 '19년 발표된 2022년 보급목표 대비 절반 수준 보급, “現정부, 정책마련에 소극적” 지적

□ 설명 내용

- 정부는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
 - 지난 4월 수립한 ‘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’에 따라 수소차 보급정책*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하고 있음
 - *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누적 660기 이상 구축, 수소차 30만대 보급할 계획
 - 특히, 온실가스·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고 장거리 운행에 유리한 상용차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*해 나가고 있음
 - * 수소버스 보급물량(예산기준) : '23년(본예산) 700대 → '24년(정부안) 1,720대

담당 부서	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류필무 (044-201-68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세호 (044-201-6884)